가족 앞에서 예수 시인하기

(마태복음 10:33~42)

33.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34.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35.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6.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37.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38.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39.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가족 앞에서 예수 시인하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가족 앞에서 예수 시인하기'
레슬링 규칙 중에 파테르(parterre)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파테르는 '땅에 엎드리다'라는 뜻의 불어로써 어느 해설자께서 "빠떼루 줘야합니다"라는 말을 연발하시던 것으로부터 유명해진 규칙입니다.
선수가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수동적인 경우에 이 벌칙을 적용시킵니다. 벌칙을 받은 선수는 무릎을 꿇고 손을 땅에 짚고 개구리 같은 수비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공격을 허락 받은 선수는 두 손을 수비선수의 등 뒤에 대고 있다가 심판의 신호와 함께 뒤집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수비하는 선수는 뒤집히지 않기 위해 땅바닥에 바싹 엎드립니다. 사지를 펴고 배에 힘을 줘서 가능한 땅에 붙어 있으려고 애를 씁니다. 공격하는 측에서는 배 밑으로 손을 넣어 들어 올려서 뒤집어야만 합니다.
이 자세가 마치 예수님과 세상의 관계와 같습니다. 파테르 상황에서 공격수가 바닥에 배를 붙이고 있는 수비선수를 들어 올리려 애를 쓰듯이 예수님께서는 땅에 마음을 붙이고 있는 사람들을 떼려내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수비력이 막강하여 좀처럼 땅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땅에서 떼어내려 하셨던 이유는 천국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마음조차도 땅에서 떨어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날 기독교계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코 마음을 땅에서 떼어내려 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러한 습성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32절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시인할 때에 가장 가까운 대상인 가족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는 배우자 앞에서 자녀 앞에서 부모 앞에서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시인하고 계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33절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함이 가정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대상은 바로 가족들입니다. 가족이 가까운 대상이라고 해서 간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밖에 나가서 성인군자인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로 천국을 갖고 싶다면 먼저 가족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지식을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티를 내기 마련입니다. 아침에 배우자와 싸우고 나왔으면 직장에 나와서도 영 기분이 좋지 못합니다. 배우자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티를 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영향을 받고 있는 티를 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시인함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마음이 낚여서 지금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티를 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듯이 나의 마음 또한 천국에 있다는 증거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가족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방법이 나타납니다.
34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라고 하셨습니다. 또 35절에서는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불화하게 한다는 말의 원문은 헬라어 디카사이(διχάσαι)로써 '떼어내다, 떨어지게 하다'라는 뜻의 동사 디카조(διχάζω)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따라서 갈등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것을 의미하는 '불화하게 하다'로써의 번역은 다소 부적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문의 어감을 살려 직역하자면 '마음을 떨어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앞서 등장했던 삼

가라는 말과도 비슷합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 마음이 따라서 반응하지 않고 떨어져 나오는 것을 삼간다고 표현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검을 쓰지 않으면 가족으로부터 마음을 떼어내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에서 괴리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나와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족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검을 가지고 마음에서 가족관계를 떼어내라고 말씀하시니 적용하기 어렵게 느껴집니다. 주님께서는 이에 더해 37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에게 주고 있는 마음을 끊지 못하는 한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37절 말씀에서 "더 사랑하다"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를 보았더니 영어 성경에서는 비교급을 써서 more than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문에서는 휘페르(ὑπὲρ)입니다. 휘페르는 ~위로(over), ~을 넘어서(beyond)의 뜻입니다. 우리는 넘어간다는 의미에 집중해서 본문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셨습니다. 세상이라는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이름의 낚시 바늘로 낚아서 가까이 온 천국으로 끌어올리시기를 바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이유도 바로 이 낚시 바늘로 사람들의 마음을 낚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이름에 낚일 때에야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과 부활과 승천과 우편에 오르신 주님의 과정에 참여하여 천국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가까이 왔다는 것일까요? 그것을 휘페르라는 말에서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배우자보다도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자녀들이 가깝다지만 천국은 내 마음에서 더 가까운 지점에 와 있습니다. 심지어 본문 39절을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님을 위해 헌신 봉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예수이름의 낚시 바늘에 마음이 낚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들어갈 천국이 마음에서 나의 몸보다도 가까이 와있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지금 내 마음이 서울 시청 앞에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멀리 부산에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은 좀 더 가까운 목포나 광주나 대구에 있습니다. 가족들은 더 가까운 천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은 가장 가까운 분당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느 지점에 와 있을까요? 천국은 바로 서울 시청 바로 옆인 양재동에 와있는 셈입니다.
이 거리는 상대적입니다. 결혼한 직후에는 남편이 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자녀가 생기면 남편은 다소 멀어지고 자녀가 가까운 자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다만 마음을 보낼 수 있는 대상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가족에게 마음을 보내고 몸으로 만나는 세상에 마음을 보내는 동안에는 정작 가장 가까이에 와 있는 천국에는 마음을 보낼 수가 없게 됩니다. 휘페르의 뜻은 “넘어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지나친다면 천국에 마음을 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가져오셨지만 정작 천국으로 보낼 마음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파테르를 받은 수비수가 땅에 몸을 붙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땅에 있는 대상을 향해 흘러가는 동안에는 땅에 마음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넘어서 가버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검으로 쳐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가까운 양재동에 와있는 천국을 넘어서 분당에 있는 몸에 마음을 보내고, 천안에 있는 가족에게 마음을 보내고, 목포에 있는 친구들에게 마음을 보내고, 부산에 있는 직장에 마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검으로 쳐내지 않고서는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천국에 마음을 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검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검을 가지고 몸에게 보내는 마음을 끊고 배우자에게로 보내는 마음도 끊고 자녀에게 보내는 마음도 끊고 부모에게 보내는 마음도 끊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을 향하는 마음을 끊지 않으면 예수님을 시인할 수도 없으며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정리해봅니다.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결을 유지하자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음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동안 마음을 천국에 보냈다는 증거를 사람들 앞에서 보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가장 가까운 대상은 바로 가족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파테르 상황에서 수비하는 선수처럼 단호합니다. 가족들에게 보내는 마음이 떨어질 줄을 모릅니다. 천국이 가까이에 왔으나 마음을 보내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을 떼어내는 검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천국을 지나쳐서 마음이 몸에 달라붙고 가족에게 달라붙고 세상에 달라붙으니까 이 모든 관계를 떼어낼 수 있는 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38절을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고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말이 오해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참고 사는 것을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폭력을 써도 참고, 자녀들이 속상하게 해도 변화를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뜻

에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정한 남편, 말 잘 듣는 자녀를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다정하지만 무능할 수 있습니다. 혹은 포악하지만 유능해서 돈은 잘 벌어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포악한데다 무능하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배우자를 가졌든지 그 배우자에 대해 마음을 끊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결코 배우자를 끌어안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죽음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것은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도의 말씀입니다. 마음에서 가족관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참고 사는 것을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여긴다고 해서 누구도 잘했다고 칭찬해주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못 돼서 마음을 힘들게 하든지 능력 있고 다정해서 위안을 주든지 천국보다 가까이에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잘된 배우자도 마음에서 끊어야 하고 못된 배우자라면 더더욱 마음에서 끊어내야만 할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못된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야 할 책임과 사명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다만 자녀에 대해서도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에 대한 마음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장 가까이에 와 있는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밀착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야 말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족으로부터 끊어낼 검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에 대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끊어주시고 끊어짐으로 생기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족에게 마음을 빼앗기려 할 때마다 십자가 칼로 떼어내고 천국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양재동까지 와있는 천국을 건너뛰고 분당으로 천안으로 목포로 부산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천국에서 멀어질수록 삶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십자가로 다 끊어내고 제일 가까이 있는 천국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성령님과 하나가 됩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사위일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분당에 있는 몸을 만나고 그 몸으로 만나는 천안에 있는 가족들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 앞에서 내 마음이 천국에 있음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마음으로 자녀를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마음이 천국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자녀를 대하게 됩니다. 이 때에 자녀 앞에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마음이 천국에 있다는 증거를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천국에 있는 상태에서 몸으로 만나는 배우자를 대하고 천국에 있다는 증

거를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가족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가능케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대박입니다. 우리는 결코 파테르 상황에서 수비를 하는 레슬링 선수처럼 마음을 땅에 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찾아지지도 않습니다. 땅에 붙어 있는 마음을 십자가 칼로 떼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와있는 천국으로 들어가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하나 된 사위일체가 될 때에 몸을 만나고 몸으로 만나는 모든 가족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몸보다 더 가까이 와있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예수님을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예수님과 천국을 지나쳐서 마음을 보내던 나의 몸과 가족들에 대한 관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끊어 주셨으니 이 끊어짐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천국에 들어감으로써 이제부터 만나는 모든 가족들 앞에서 마음이 천국에 있는 증거를 드러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